

# '어르신 공경'은 젊은이의 의무

## 노인 79% "재산 있어야 자식에 대접받아"

### 복지부 효행자 대학특례 확대... UN제정 '세계 노인의 해'

'아내 하고만 애기를 하고 부모가 노령이 되면 자식에게 의지하기를 원하는데도 인사한 번 제대로 하지 않는다. 부모 가운데 어느 한 분이 먼저 돌아가 의외로 자녀들끼리도 여관에 묵고 있는 손님 대하듯 은혜의 정이나 담소의 즐거움을 주지 않는다.' (부모은중경)

조상과 부모를 찾아 차례와 세배를 올리고 그분들의 공덕에 감사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 설날. 어느 명절보다 효심이 강조되는 이 때 자녀들의 세배를 받지 못하는 부모와 노인들은 얼마나 될까. 급격한 핵가족화로 인해 어른들을 공경의 대상이 아닌 손님 대하듯 하는 요즘의 세대. 부모·노인에 대한 전통적인 공경의식이 희박해짐에 따라 정부의 노후 복지대책의 확충과 함께 노인 공경의 미풍양속 회복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이 지난해 4~5월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 2천6백여명을 대상으로 생활실태 및 복지요구를 조사한 결과는 가정과 사회로부터



◇ 조상과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설날은 노인을 공경하는 미풍양속으로 남아있다.

터 존경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소외감을 잘 나타내고 있어 이런 여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조사대상 노인들의 78.6%는 자녀들에게 대접받으려면 재산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필요없다는 생각은 16.4%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노인들의 자녀 접촉빈도가 그렇지 못한 노인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부모 봉양 분위기 확산 및 가족의 노인 부양 기능 강화를 위해 현재 일부 대학에서 시행중인 효행자 대학특례 입학제도를 확대하고 전통 3대법가정(3대이상 동거가족)을 포상하며 그밖에 상속세 감면(1인당 3천만원), 소득세 공제(1인당 150만원), 주택자금 융자 지원(가구당 1천만원 추가 지원) 등도 추진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3백55만명으로 전체의 6.6%였으나 내년 중에 7%를 돌파하고 2022년엔 14.3%에 달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하고 있다. 이같은 고령화 속도는 선

### 생활정보

#### 갑자기 아프면 '1339'

연휴기간중 갑자기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보건복지부의 응급환자 정보센터로 전화(1339번)하면 지역별 당번 병·의원이나 보건소, 약국에 대한 안내는 물론, 응급처치 및 질병상담까지 해준다.

#### 희재보상 상담

서울시내 도심에서 6, 8일 며칠 간격으로 24건의 연쇄방화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는 화재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전국 1백39개 소방서에 '화재피해 복구안내소'를 설치, 피해복구를 위한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상담내용은 각종 세금면제제도, 화재로 손상된 현금의 교환방법, 각종 증명서 훼손에 대한 복구방법, 보험청구절차 요령 등.

#### 한복 선택 및 보관법

한복은 경제사정이 허락하면 한 세트를 한꺼번에 마련하는 게 좋다. 그래야 조화를 연출하며 제멋대로 낼 수 없다. 남자 한복은 두루마기 마고자 조끼 저고리 치마, 여자 한복은 두루마기 저고리 치마 속치마 흰버선, 어린이 한복은 마고자 조끼 저고리 바지(셋트), 저고리 치마(여자가 한 세트이다). 가능한한 물빨래가 가능한 옷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보관은 한복이 구겨지지 않도록 넓은 공간에 해야 한다. 빨래 후 그늘에서 햇볕에 걸려 말리며, 금박된 옷은 천을 덮어 다림질 해야 한다.

### 시론

## 의식개혁의 봄을

2월 8일과 오는 3월 1일은 2·8도교독립선언과 3·1독립운동 80주년이 되는 해이다. 또 올해는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쳐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4·19혁명 39주년이 되는 해이다. 해마다 새 봄과 함께 3·1절을 맞고 4·19를 맞이하지만 그 자유·민주·정의의 정신은 어디갔는가 묻고 싶다.

입춘이 지나 새 봄을 맞는 하늘은 푸르고 맑지만 하지만 우리 사회의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기운은 언제쯤 가시지 안타깝기만 하다. 월간(조선) 2월호에 게재된 前 조계종 총정 서암 스님의 말씀에 의하면 오늘날 한국 불교의 가장 큰 문제는 중아닌 중들이 중노릇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승려의 자격과 위의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 중노릇하면 본인도 합당하고 신도들에게는 물론 불교계에 엄청난 피해를 준다.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사법부 파동도 마찬가지이다. 정의감이 없는 일부 사법비 법조인들 때문에 물의를 빚고 있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와 좌절감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일부 교회 역시 목사 아닌 자들이 목사노릇하고 있다. 목사·스님·신부에게도 국가 고시를 실시해 자격을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쓴웃음이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렇게 위선과 허위야 당연이 되는 것이다. 자기자신과 역할을 알고 처신에 맞게 행동해야 하는데 제 자리에서 제 역할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기자신을 알고 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의식개혁, 자각의 운동이 절실하다.

국민들의 의식개혁을 위해서는 위로부터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인간으로서의 자질을 계발하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개혁을 해야 한다. 우리는 시대마다 자유·민주·정의의 일깨우는 운동이 있어왔다. 그 대표적인 것이 4·19혁명이다. 그러나 당시의 뜨거운 정신



최용기 (청원대 교수·법학과)

제자리 제역할 철저히 지켜질때 자유·민주·정의 이땅에서의 실현

### 설날 보고 들을 거리

#### 방송

▲EBS 교양강좌(EBS FM)=20~27일 오전 10시부터 60분간. △20일 음악이 발전해온 이야기 △22일 한국 속담·수수께끼의 역사와 그 특징 △23일 한국 축제의 역사와 그 특징 △24일 우리 삶 속에 문화 예술은 왜 필요한가? △25일 통일을 기다리며 △26일 춤을 비롯해 음악이 만나는 다른 분야 이야기 △27일 아름다운 생을 위한 음악의 의미 등.

▲'현대학의 영웅들'(EBS-TV)=매일 저녁 6시45분. △17일 응급의학의 선구자 피터 로즌 △19일 바이러스 전문 연구자 칼 존슨 △25일 여성질환 퇴치 명의의 수잔 러브 △26일 조울증 치료의 대가 케이 재미슨.

#### 전통공연

▲국립국악원(02-580-3300)=17일 오후 5시 '설날, 달토끼 흥가다' 공연. 판소리 '수궁가'는 물론 관현악곡 전인평의 '별주부야 토끼', 가요곡 '별창과 관현악이 어울리는 박범용의 토끼, 다시 세상에 나오는 대독', 색소연주자 이정식씨 등의 '토끼 별주부야 흥가다' 등 여러 장

#### 개봉영화

▲쉬리=남북 특수요원 갈등구조에 멜로 결집된 첩보액션 한국 영화. 한석규·최민식 주연. 서울·명보·허리우드극장.

▲연풍연가=제주 섬녀와 서울 셀러맨이 엮는 사랑. 장동건·고성영 주연. 파카디로·중앙.

▲화이트 달렌타인=순수하고 동화같은 사랑 이야기. 박신양 주연. 단성사.

▲마요네즈=모녀간의 갈등을 일상 생활속에서 재치 있게 풀어 나간다. 최진실·김혜자 주연. 서울·중앙·허리우드.

▲빅 타임=사랑을 위해 입학가 조직과 폭속전 열투를 그린 액션물. 성룡주연. 서울·중앙·대한.

## "아시아 2-3년내 물부족사태"

월드워치리서치·유네스코·세계기상기구 등 3개 기관은 유엔연구기구(UNFPA)가 올 10월쯤 세계인구가 60억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한 가운데 아시아 지역과 인도 등의 일부 지역에서는 2~3년내에 물부족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월드워치연구소가 11일 발표한 '99년 세계전망'보고서에 따르면 91~96년 중국 북부 농업지역의 지하수면은 연평균 1.5m씩 낮아졌으며, 인도의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지하수면은 매년 1~3m씩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월드워치연구소는 2~3년내에 물부족사태는 식량난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즉, 물부족을 겪는 국가가 오는 2025년에는 34개 국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반야심경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禪' 최초로 공개.

◎신기·영기를 발하는 佛자 달마(다라시) 그림 那 지그림 (수액·차단) 특별보사!

특전: 전문수업 1인 1인 교습으로 100% 효과

한국 수액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생명의 전화 : (주) (02)2242-0331, 2242-0255 (야) 2216-0307, 011-471-1996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전보로 주문하시거나 본보에 드십시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 천축산가옥의 신비!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천축산가옥이 처음 10분후 백은 손의 문과 파장이 활발하다. 연속 사용전 1.5μV 연속사용후 3.0μV로 체내전압 상승

『보석 인가?』 『영험한 치료제 인가?』

혈액순환, 고혈압, 당뇨, 신경통, 관절염, 오십견, 두통, 불면증, 심장병, 치매방지, 신장염, 갱년기장애, 피부미용, 생리통, 오장, 스트레스, 항병, 노화방지...

너무힘들 때는, 옥을 같이 사용해 보세요!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목돈108원(10mm, W60,000)

중국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목걸이 걸은 옥환체통, 건강보존 기경량 100%, 무거운 것을 싫어하는 분에 적합, 마른자리를 갈복 수 있고, 달린채의 마음을 줄일 수 있어 좋다. 효과를 기록했다. (93. 2. 17)

조선가옥이 의약은 아니나 그러나 한에서 손주들에게 전하는 유물은 대명을 대신하고 가꾸어져 있습니다.

玉山에서 기억만큼 특별해서 사이라니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천축산가옥) 玉山家 (02)777-0105 (수원판매부)

### 아·박·타

뜻대로 사는 길

정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램니까? 꼭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습니까? '나'가 누구이며, 무엇인지 아십니까? 규원·매달음이 당신의 소원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아박타를 경험하세요!

●아박타는 신념이 경험에 우선한다는 일체유심조의 원리에 기초한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의식개발프로그램으로 현재 61개국, 14개 언어로 전수되고 있다.

●아박타는 자신의 생각과 신념체계를 자유자재로 관리하여,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되어 원치않은 삶의 부분은 소멸하고, 원하는 삶을 창조해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아박타 코스는 종교색이 아닌 전혀없이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로부터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수행법으로 구도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아박타 코스는 불교 심리학을 실용화했으며 참선 수행등을 좀 더 보편화하여 평소 안고 있던 화두를 참구하는데 도움을 보태어 깨달음을 점수해 한다.

"아박타 코스는 길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다. 그러면서도 이 코스는 인간의식에 믿기지 않을 정도로 큰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힘을 넣어준다."

아박타는 당신이 찾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당신을 찾아옵니다. 아박타의 이점으로..

·아박타코스는 7~9일이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영축 아박타센터에서는 매일 첫째 목요일 오전 9시에 코스를 시작합니다. ·아박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전화하십시오. 안내 해자를 보내드립니다.

영축 아박타 센터 0523)381-1143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474(통도사 근처) 011)882-1149

### 심야전력기기

IMF·고유가시대 기름값 걱정해소방법

■심야전력기기관: 「한국전력공사」에서 야간 시간에 남이도는 전기를 일반전기의 약 1/4~1/10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전기로 일반 기름 보일러보다 약 1/3~1/4수준의 난방비를 따듯하고 쾌적한 24시간 난방을 할 수 있는 전기 보일러, 온돌, 온수기, 온풍기등을 말합니다.

■심야전력기기는 목조건축이 많은 사찰의 특성상, 가장 경제적인 난방비로 연료주입, 저장의 불편함이 없고, 화재·폭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청정난방기기입니다.

겨울철난방비를 70% 이상 절약합니다.

▶심야전기보일러: 기존 기름보일러와 교체공사만으로 기존 심야전기 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

▶심야전기온돌: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열손실이 없고, 동파의 위험이 없습니다.

▶심야전기온수기: 미리 저정된 온수를 사용하므로 추운 날씨에도 일시에 많은 양의 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야전기온풍기: 화재의 위험이 없고 깨끗한 실내 공기를 유지하므로 미취학 아동에게 적합합니다.

전국사찰 심야전력기기·전력공사 전문업체 금강산업·금강기전

“심야전기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문의전화: 0343)468-7200(대) 0343)445-6090 FAX : 0343)445-3370